

현대 패션 스카프 연출법에 관한 연구

박 순 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1. 서론

현대사회는 의복의 형태가 단순화되면서 액세서리에 의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액세서리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스카프란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목에 두르기도 하며 머리에 감싸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천으로써 여성에게 있어서 어느 시대에도 유행과 관계없이 애용되는 여성의 필수품으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소품이며, 각각 개성을 중요시하면서 자유롭게 착용하고, 자신만의 패션을 만들어내고 연출하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¹⁾

이렇듯 우리의 의생활에서 스카프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받는 액세서리도 드물다. 최근 패션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면 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스카프를 착용하므로써 1년 내내 애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카프는 다양한 연령층의 모든 사람들이 애용하는 패션 코디네이션의 필수 아이템이 되어 패션소품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다. 옷장 속에 한두 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했던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10개가 넘는 스카프를 구입해 옷마다 코디를 달리하는 멋쟁이들도 눈에 띈다. 늘 입던 옷이라도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면 색다른 변신이 가능해 스카프는 많을수록 좋은 아이템 중 하나로 꼽힌다.

스카프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카프의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와 스카프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따라서 스카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연출법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는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패션업계 경향이 클래식과 빈티지 등 극과 극을 오르내리며 다양화되고 있어 스카프의 디자인과 스타일도 세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스카프에 있어서 방한을 목적으로 한 실용성과 장식적인 면 이외에도 더욱더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스카프의 개념과 특성의 이론적인 고찰을 문헌을 통해 조사하고, 둘째, 패션스카프의 종류와 연출법의 유형을 분석한다. 셋째, 스카프의 조형미를 도입한 현대 패션스타일에 나타난 연출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스카프의 개념

[†]교신저자 E-mail . scpl220@yahoo.co.kr

1) Charlotte mankey calasbetta, ph 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Fairchild books, New York, 1998, p. 480.

현재 우리가 스카프라고 부르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몸을 치장하는 장식물로 알려져 왔다. 스카프의 사전적 정의는 첫째, 장식이나 방한의 목적으로 목, 어깨 또는 머리에 두르는 울, 실크, 레이스 등의 재료로 만든 길고 넓은 띠. 둘째, 양끝이 늘어진 크라바트의 넥타이. 셋째, 책상과 테이블 등을 위한 긴 덮개 또는 장식천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스카프(scarf)’란 목에 감거나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머리에 쓰는 등 장식과 실용을 겸한 목도리의 일종이다. 어원을 알고 보면 프랑스어의 에스카르프(escarpe, 장식띠 또는 벨땡)에서 발전한 에샤크렘프(escrèpe, 순례자의 잠보파리 또는 지갑)에서 파생되었다고 진술한다. 순례자의 지갑은 오늘날 여행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여권파우치와 같은 목 주위에 친 끈을 매달은 것이다.²⁾ 또한 페어차일드 복식사전에 의하면 스카프는 목에 감거나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방한과 장식을 위해 머리에 쓰는 실용과 장식을 겸비한 장신구의 일종이라고 한다. 셋째, 어깨부터 반대편 힉까지 대각선으로 몸에 걸쳐 허리에 감는 천이나 어깨에 두르는 장식적인 새쉬(Sash-장식띠)이다. 넷째, 1830년에 남자들이 스카프를 타이핀에 고정시켰고, 셔츠 앞을 덮어 걸쳤던 매우 커다란 크라바트이다. 다섯째, 19C후 넥타이는 끝에 넓게 매달린 것, 검정색으로 된 좁은 넥타이라고 한다.³⁾

스카프는 넥타이의 원래 이름인 크라바트(Cravat)의 변형으로 보여진다. 뽀뽀하고 높은 셔츠 칼라가 지금의 셔츠와 같은 턴다운 칼라(Turn-down Collar)로 변화되면서 크라바트는 점차 지금 형태의 타이로 대체되었고, 수십가지 다양한 모양의 매는 방법들은 사라져 몇가지 방법만이 남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모닝 코트에 매는 아스코트 타이(Ascot Tie)와 같은 방법으로, 첫 단추를 풀고 셔츠안에 매어지는 것이 지금의 스카프이다.⁴⁾

3. 결 론

현대 패션에서 스카프의 역할은 상당히 독립적이다. 의복보다 세련되고 독특한 연출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독립적인 역할을 요구함으로써 스카프 패션이 정착되었으며 이제는 스카프가 하나의 패션아이템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최근 경향은 최대한 부티나케 보이는 럭셔리스타일의 컬러와 소재로서 컬러보다는 소재의 고급스러움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지만 그보다도 패션 스카프 연출법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의 패션스카프 연출법의 키워드는 두 가지 즉, ‘늘어지거나 비대칭적이거나’이다. 스카프는 의복과 같은 색상 및 질감으로 할 수도 있고 대조되는 색상으로 할 수도 있다. 보통 의복과 같은 색상이 무난하며 여러가지 무늬가 있을 경우 그 가운데 한 가지 색상을 택하여 스카프 색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스포티한 의복에는 체크 줄 무늬가 어울리며, 드레시한 의복에는 물방울 무늬 등이 좋다. 패션트렌드에서 나타나듯이 스카프패션은 이제는 트렌드로서 정착되어지고 있다. 이렇듯 한장의 스카프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스카프 연출법에 관해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형별 패션스카프 연출법은 스카프를 멋지게 연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과 가장 잘 어울리도록 피부색과 이미지, 평소 잘 입는 의상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한다. 스카프를 얼굴이 크고 목이 짧은 사람들이 할 경우 목에 봉대처럼 묶고 있으면 답답해 보일 수 있으므

2) Lois Martin, The Scarf, *Surface Design Journal*, Halsey, Summer, (1994), p 14

3) Fa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Farchild Books*, N.Y., (1998), p 480

4) <http://www.cambridge.co.kr>

로 느슨하게 아래쪽으로 묶거나 아니면 그냥 세로로 길게 늘어뜨려 날리도록 연출하는 것이 좋다. 처진 어깨인 경우는 기본 매듭법을 사용하며 넥타이 폭은 좁은 것이 어울리며 스카프는 보통으로 묶고 위에 입는 셔츠 등은 깃이 조여지는 것이 좋다. 또한 스카프로 어깨를 감싸듯이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위에서 묶는다. 숏어깨인 경우는 넥타이폭을 좁게 하고 매듭을 조금 내려서 넥라인에 브이존을 만들고 리본을 펼쳐서 풍성하고 볼륨있게 마무리한다. 스카프는 보통으로 묶고 입는 셔츠 등의 넥라인은 브이라인으로 한다. 피부색상과 얼굴크기에 따른 연출법은 얼굴작은 사람은 옅은 색상을 고르는 것이 적당하며 얼굴이 크고 검은 사람은 짙은 색상의 스카프가 잘 어울린다.

둘째, 패션 스카프의 악세서리 코디연출법은 손가방 손잡이 부분에 묶거나 터번처럼 머리에 쓰거나 머리카락, 헤어핀 등으로 장식하면 단조로운 옷에 포인트를 주면서 새련된 느낌을 살릴 수 있다.

셋째, 의상의 종류에 따른 패션 스카프 연출법은, 정장패션에는 실크나 나염류의 스카프가 어울리고, 캐주얼패션에는 면소재나 편물류가 잘 어울린다. 원피스나 드레스에 여성미를 강조하려면 속이 비치고 하늘거리는 시폰소재를 고르는 것이 좋다. 스카프를 의상과 같은 색상이나 질감으로 선택하면 차분해 보이며, 대조되는 색상으로 고르면 화려한 인상을 준다. 스카프에 여러가지 색상과 패턴이 혼합된 화려한 디자인은 의상과 일치하는 한 두가지 색상이 포함돼 있으면 무리가 없다. 은은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원할 때는 옅은 색상에 프린트가 자제된 무늬 또는 물방울 무늬를 사용한다. 또한 화사하고 화려한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는 짙은색 바탕에 꽃이나 전통문장이 가미된 것을 선택하면 좋으며, 줄무늬나 체크무늬는 활기 찬 느낌을 준다. 패션아이템에 따른 스카프 선택은 소재별, 색상별, 코디법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

따라서, 현대 패션에서 스카프의 역할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액세서리로서 패션의 트렌드로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재, 색상, 패턴 등 디자인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의복과 함께 코디하는 연출법을 습득함으로써 자신감 있는 패션스타일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Charlotte mankey calasbetta, ph.D. (199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Fairchild books*. New York. p. 480.
- Lois Martin (1994). *The Scarf, Surface Design Journal* Halsey, Summer. p. 14.
-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1998). Fairchild Books. N.Y. p. 480.
- 유희경 (1977).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 59-60.
- 박경자 (1982). *한국의 복식*. p. 343.
- The Books of Costume by Millia Davenport* (1976). New York: Crown Publishers Inc. p. 4.
- 이정옥, 최영주, 최경주 (1987).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pp. 87-99.
- R.Turner Wilcox (1958).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s Sons. p. 296.
- 차민정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 디자인 연구." *건국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6-17.
- Andrew Baseman (1989). *The Scarf*. New York. Tabori & Chang. p. 17.
- 이정옥, 이연순, 권미정 공저 (1995). *패션과 의생활*. 형설출판사.

서재희 (1997). "스카프디자인의 추상적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p. 31.

<http://www.miclub.com>

<http://www.cambridge.co.kr>